

“쇼핑엔 국경이 없다”... 해외직구도 로켓 배송시대

쿠팡·이베이코리아·티몬 등
국내배송만큼 빠르고 무료배송까지

쇼핑엔 국경이 사라진 지 오래다. 과거에는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오랜 배송기간이 지나야 겨우 상품을 받아볼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해외직접구매(해외

직구)가 일상이 됐다. 해외 유명 브랜드의 가전제품과 패션 잡화, 건강보조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면서 이커머스 업계는 해외직구 배송 서비스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해외직구 소비자가 급상승하면서 최대 매출액을 달성하기도 했다.

국내 이커머스업계 1위 쿠팡은 로켓직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쿠팡에서 로켓직구 제품을 주문하면 주문 후 3일 만에 배송하는 혁신적인 직구 서비스다.

쿠팡은 해외직구 전문관 ‘로켓직구관’을 통해 소스, 통조림, 분유 등 식품군을 포함해 효능별 건강식품, 비타민/미네랄, 주방용품, 세탁 청소용품, 뷰티 및 생활용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엄선된 해외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고 있다.

기존 직구 서비스는 긴 배송시간, 불편한 주문 및 결제, 배송 과정에서의 분실이나 사기 우려 등으로 고객 불만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쿠팡의 로켓직구는 3일만에 배송(도서 상품은 5일

배송), 편리한 로켓페이 활용, 안전한 주문과정 관리로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게다가 2만9800원 이상 주문할 시 해외직구 상품임에도 무료배송을 하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빠른 배송과 철저한 주문관리가 가능한 이유는 쿠팡의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가 제품을 발송하기 때문”이라며 “쿠팡의 편리한 주문·배송 시스템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베이코리아는 환율 변화로 인한 가격 변동, 배송 대행없이 관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노출함으로써 해외직구의 복잡한 과정을 단순화했다.

또한 ‘빠른 직구’ 서비스를 도입해 일부 상품의 경우 주문 후 3일 이내 현지에서 발송하고 있다. 해외직구로 TV를 구매할 경우 자체 계약된 전문 업체와 설치 기사가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배송부터 설치까지 진행해준다.

특히 이베이코리아는 2016년부터 사오미의 공식 온라인채널로 선정돼 국내 최초 사오미 브랜드 샵을 오픈해 국내에 정식 판매하고 있다. 국내에서 A/S 가능

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보여 만족도가 높다.

지난해 블랙프라이데이 기간(2018년 11월 19일~25일 기준, 전년 동기 대비) 해외직구 신장률은 G마켓이 70%, 옥션이 42% 증가했다.

가장 최근에는 티몬이 가전, 가구, 패션, 식품 등 약 150여개의 다양한 해외직구 인기상품을 할인가격과 무료배송으로 판매하는 ‘해외직구데이’를 매달 9일에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매월 9일 ‘해외직구데이’에는 모든 직구 상품의 배송비가 무료로 진행되며, 몇몇 상품의 경우 관부가세도 별도로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간편한 쇼핑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배송이 빨라야 한다”며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해외직구 배송 관련한 서비스들을 도입하고 있다. 앞으로도 소비자 편의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커머스 업체들의 차별화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파리바게뜨, 벨런타인데이 제품 50여종 출시
파리바게뜨가 11일 오전 서울 세브란스본카페대학로점에서 벨런타인데이를 맞아 출시한 케이크 등 제품 50여 종을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CJ오쇼핑, 캐시미어 명가 ‘고요’ 단독 판매

몽골 캐시미어 시장 신홍 강자

CJENM 오쇼핑부문이 캐시미어 전문 채널로 거듭난다. 몽골 최대 캐시미어 브랜드 ‘고비’에 이어 ‘고요’까지 업계 최초로 선보이며 캐시미어 전문 판매 채널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이다.

CJ ENM 오쇼핑부문은 몽골 고요 본사와 국내 온오프라인 단독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올해부터 고요 단독 판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요는 몽골 최대 캐시미어 브랜드 ‘고비’를 운영하는 타방북드 그룹이 2017년 인수한 브랜드다. 몽골 캐시미어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타방북드 그룹에 인수된 후 캐시미어 생산량을 4배 늘리는 등 몽골 캐시미어 시장 신홍 강자로 급부상 중이다.

타방북드 그룹은 한국 TV홈쇼핑계 프리미엄 패션의 성장성과 2017년 오쇼핑부문이 한국에서 고비를 성공적으로 론칭한 점을 고려해 오쇼핑부문에 고요의 한국 총판을 맡기로 했다.

실제 고비는 방송 론칭 3개월 만에 누



고요 니트 집업 스커트 세트. /CJ ENM 오쇼핑부문

적 주문금액 2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까지 누적 주문금액은 약 540억원으로, 99만원의 고가 상품도 방송 시작 20분 만에 완판되는 등 높은 호응을 받았다. 수년간 해외 유명 브랜드와 협업해 상품을 개발해온 오쇼핑부문의 노하우와 고비의 프리미엄 소재가 더해진 결과라는 평가다.

고요는 소재부터 원사, 원단, 완제품까지 모두 생산 가능한 소재 생산지와 완제품 제조지가 다른 타 브랜드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다. 또 자체 염색 연구소가 있어 다양한 색상의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신원선 기자

현대리바트, 세라믹타일 유통사업 첫 발

세계 3대 전문기업 ‘플로림’과 독점계약
건자재 생산 능력·프리미엄 라인 갖춰
플로림 타일 적용 등 제품 고급화 나서

현대리바트가 토탈 인테리어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그룹 차원에서 종합 건자재 기업인 현대L&C를 인수한 데 이어 국내 가구업계 최초로 세계 유명 세라믹 제조사와 독점 수입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가구업계 최초로 세라믹타일 가공 및 유통사업을 통해 ‘주요 원자재 생산·직소싱-가구 제조-설치·시공’이 가능한 ‘일관 생산체제’ 기반 구축에 나선 것이다. 이로써 현대리바트는 품질 고급화와 가격 경쟁력 확보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

현대리바트는 이탈리아 세라믹타일 제조 전문기업 ‘플로림’과 프리미엄 세라믹 브랜드 ‘플로림 스톤’에 대한 국내 독점 수입계약을 맺고, 세라믹타일 유통사업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내 가구업체가 해외 유명 건자재 기업과 독점 수입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플로림’은 1962년 설립된 세계 3대 세라믹타일 전문기업으로 프리미엄 세라믹타일 500여 종을 유럽 현지와 전세계 50여 개국에 판매하고 있다. 세라믹타일은 무기질 등 천연물질을 압축하고 1300도 이상 고온의 굽기 과정을 거쳐 만든 친환경 인테리어 건자재다.

현대리바트 관계자는 “세라믹타일은



플로림 쇼룸. /현대백화점그룹

유럽 인테리어 석재 시장에서 단기간 내에 약 25%의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홈퍼니싱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인테리어 고급화 바람이 거세지고 있어 세라믹타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리바트는 국내 최초로 ‘세라믹 가공센터’도 짓고 있다. 이르면 2월 중 완공되는 ‘세라믹 가공센터’는 경기도 용인 공장에 1650㎡ 규모로 들어선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해 말 종합 건자재기업 현대L&C를 인수하며 엔지니어드 스톤(제품명 ‘칸스톤’)과 창호, 벽지 등 건자재 생산 능력도 확보했다. 여기에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프리미엄급 건자재인 세라믹타일의 유통 및 가공 역량이 갖춰지게 됐다.

현대리바트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부엌

가구 브랜드 ‘리바트 키친’의 프리미엄급 제품과 리바트 식탁 상판에 ‘플로림 세라믹타일’을 적용하는 등 B2C사업 강화를 위한 품질 고급화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 현대L&C가 보유한 B2B 건자재 네트워크를 활용해 고급빌딩과 아파트 인테리어용 세라믹타일 시장 선점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1년까지 세라믹타일 사업 부문에서 누적 매출 500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양희창 현대리바트 건설사업부장은 “국내 인테리어 시장은 매년 20% 이상의 고신장세와 함께 고급화 바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프리미엄 친환경 소재인 세라믹타일을 활용해 B2C 가구 시장뿐 아니라 강남 재건축 아파트 인테리어 마감재 등 고급 B2B 시장 공략도 동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G마켓·옥션, 한 달간 릴레이 할인 프로모션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G마켓과 옥션이 2월 한 달간 릴레이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베이코리아는 식품·육아를 비롯해 디지털·가전, 리빙·레저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을 매주 릴레이로 선보이며, 일별 특가상품부터 쿠폰 제공까지 풍성

한 혜택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11일부터 일주일간 식품·육아·마트 카테고리 내 브랜드 상품을 특가로 만날 수 있다. 이어 오는 18일부터는 ‘디지털빅세일워크’가 펼쳐진다. 노트북부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의 IT기기와 가전제품을 특가에 준비했다. 2월의 마지막

주인 25일부터 28일에는 신학기 맞이 학용품과 생활용품 등 리빙·레저 관련 상품을 할인가로 선보인다.

쿠폰을 통해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다. 각 기간 중 ID당 1회, 전 회원에게 1만 5000원 이상 구매 시 최대 5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12%쿠폰’을 제공하고, 스마일클럽 회원에게는 1만 5000원 이상 구매 시 최대 5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15%쿠폰’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원선 기자